

IT 강국이 될려면



박병근 진솔시스템(주)/대표컨설턴트

정 보시스템 감리업무에 종사한지 올해로 7년째이고 대부분이 개발 프로젝트 감리이다 보니 직무상 국내 정보시스템 개발 현장을 자주 접하게 된다.

개발 감리의 목적이 개발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 평가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함에 있기 때문에 개발자의 잘못을 찾아 시정을 요구하게 되는데 불완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힐책하기에 앞서 개발자들이 납기지연으로 밤샘 작업을 1-2 개월씩 지속하고있는 현장을 접하면 안쓰러운 마음이 앞서고 IT업종을 3D업종이라고 자탄하는 전산인들의 말이 피부에 와 닿는다.

우리나라가 초고속 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형성된 인터넷 보급에 힘입어 형성된 IT 강국의 이미지에 맞는 실력을 갖추려면 요원하다는 느낌마저 든다.

정보시스템 개발 시 발생하는 제일 고질적 병폐는 요구사항 변경으로 인한 설계 사양 변경으로 인한 업무량 증가와 이로 인한 납기 지연 및 원가상승 문제이고 결국엔

약력 : • 83~89 삼미전산(주) 상무이사 • 89~93 한국컴퓨터(주) 상무이사
• 93~95 쌍방울상사(주) 전무이사 • 현재 진솔시스템(주) 대표컨설턴트

개발업체의 채산성 악화와 정보시스템 개발 요원들을 혹사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주 요인으로 이는 일부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 구조적 모순 내지는 비합리적인 관행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 동안 감리 활동을 통해 발견된 발생 원인은 대략 다음과 같은 경우로 요약 될 수 있었다.

- 개발업체의 분석 능력 미숙으로 개발 업무의 본질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한 채 현업 담당자의 단순 업무 설명만 의존하여 요구사항을 도출하다 보면 중요 항목이 누락되거나 의사 전달이 잘못 되는 등 개발업체의 미숙한 분석 능력 때문에 분석 단계에서의 요구사항 도출이 불완전한 경우

- 현업 사용자의 무관심 또는 소극적 참여로 충분한 요구사항 도출이 안되는 경우

- 발주업체의 제도나 환경 변화로 수정이 불가피하여 사양 변경을 하면서도 금액이나 납기를 변경하는 수정 계약 없이 개발업체에게 사양 수정을 떠넘기는 관습화 된 발주업체의 횡포

- 전체 공정이 짧아 분석기간이 짧게 책정됨으로서 요구사항 분석 활동이 부실한 경우

- 분석 설계 결과에 대한 발주업체 의 형식적인 불 見 字 확인 절차로 끝내고 발주업체가 구현된 최종 결과를 보면 그때서야 사양 수정요구가 나오기 시작하는 타성화 된 현실 여건으로 구현 단계 및 검수 단계에서 요구사항 추가, 변경이 대량 발생하는 경우 등이다.

위의 경우에서 탈피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생산성을 높이려면 개발 과정에서 결정된 합의사항이나 동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사양 변경 시 사양 변경의 책임 부분에 대해 추가 발생 경비를 부담하고 납기 변경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하겠다.

현장에서의 처리과정을 보면 변경이나 추가 사양에 대한 수정 계약을 강력히 요구하면 유별난 융통성 없는 업체로 지목되어 향후 영업활동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무상으로 수용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이로 인해 요구분석 단계에서의 요구사항 도출 공정 자체도 추후 변경 될 것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발주자 개발자 공히 철저하게 수행하지 않는 결과가 되어 더 더욱 수정이 많아지는 악순환을 초래하는 현실이다..

이런 관행의 저변에는 철저하고 분명한 계약위주의 서구적 업무수행 관습에 비해 인간적인 면은 있으나 철저하지 못한 적당주의적인 한국적 사고 방식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를 탈피하기 위한 사고의 전환을 하지 않고는 정보시스템개발의 생산성 내지는 합리적 발전을 기대 할 수 없다고 하겠으며. 물론 정보시스템 종사자들의 자발적 자각이 있어야겠으나 자연적인 치유는 장기간이 소요됨으로 국가적인 해결 과제로 선정하여 제도적인 접근을 통한 해결이 시급하다 하겠다.

IT 강국이 되기 위한 또 한가지 개선되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개발 방법론 사용의 정착화 내지는 충실한 실천이라 하겠다.

중소 개발업체는 물론이고 대기업의 경우도 하청 업체

를 이용하다 보면 개발방법론 자체를 충분히 교육받아 숙지하지 못하고 개발방법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이나 품질 향상을 기할 수 있는 본연의 취지를 망각한 체 감리를 대비한 수단 정도로 생각하여 중간 감리나 최종감리 시점에 짧게는 2주 길게는 2개월 정도 산출물을 작성하는 중복적 성격의 문서화 작업을 별도로 하고있는 현실을 자주 보게 된다.

산출물 작성이 향후 유지보수 외에 각 개발 공정에서의 작업 내용을 그때그때 충실히 하여 품질향상에 기여함에 있음을 감안 할 때 감리 수검이 아닌 생산성 및 품질 향상 측면에서도 개발방법론 사용의 정착화는 IT업계의 필수적 과제라고 생각된다.